



##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인사와 함께 첫 선교편지를 드립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영국 날짜로 1월3일 오후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2018년 새해를 다시 삶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지나간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되지요.

저도 역시 오랜만에 방학이라 돌아온 아이들과 함께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웨일즈 작은 마을 클라릭클리(Llanelli-웨일즈어로 발음)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사이즈는 작고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지 오래지만 그래도 오래전 이 땅 켈트족의 신앙이 살아있는 뿌리를 보게 됩니다.

대영 제국이라는 Great Britain(GB) 지금의 영국은 역사적으로는 원래 켈트족의 땅이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켈트(Cymru)라는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원래 영국 땅에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지요. BC 9,000년부터 이땅에 살았던 이들은 AD 5C 로마가 멸망하기까지 로마의 지배에 있다가 게르만족 이동으로 영국 땅에 들어온 앵글로 색슨족에 의해 다시 지배되고 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의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일부지방으로 밀려나 살게 되지요. 그 후 잉글랜드의 속국으로 살아오다가 13세기초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면서 지금의 영국이라는 나라로 종속되어 영국의 일부가 되어버리지만 여전히 그들의 역사와 마음안에는 이 땅에 주인이라는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재미있는것은 웨일즈(Wales)라는 말의 뜻이 원래 켈트언어로는 "우리 동족, 우리가족"이라는 뜻이지만 켈트족을 몰아내고 들어온 앵글로 색슨족에게는 성벽넘어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의 영어로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고 조선인들이 전라도의 한 지역으로 몰려지면서 점점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 수백년간 지금까지 살아가지만 여전히 조선어와 문화를 지키며 살고있다고 보면 웨일즈의 역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실감있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곳 웨일즈는 영국 안에 속해 있으면서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켈트의 자기 언어와 문화, 국기를 아직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두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국 웨일즈 국기>

## 모라비안 신앙공동체

얼마전 저는 선교편지를 보내면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00년전 1172년 왈도파의 이야기를 나누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신교의 역사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로마교회의 잘못과 가르침을 반대하며 순결한 복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숨겨진 신앙인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2017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오후에 근대 선교의 뿌리가 되었던 모라비안에 대해 나누면서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모라비안들이 함께 살았던 독일 헤른후트의 공동체 자리>

마틴루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도전이며 개혁이며 분기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수 없었던 당시 로마교회가 권력앞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게했던 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전 편지에 나누었던 것 처럼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이면에는 얀 후스라는 마틴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보헤미아(지금의 체코지역)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 얀 후스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중에 한 부류가 지금의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에서 놀라운 기도와 선교의 공동체를 시작했던 모라비안들입니다.

모라비안들은 슬라브 민족으로 지금의 체코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체코라고 불리지만 모라비아 왕국- 보헤미아 왕국-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로 국가가 바뀌는 역사적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체코가 됩니다.



15세기 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로마교회가 보헤미아교회를 병합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안 후스의 영향을 받고 로마교회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지도자인 안 후스(John Huss)의 영향과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후스가 1413년 드디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자 그의 추종자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온건파였는데, 1437년 보헤미아 국가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강경파였는데 "형제의 교회"(the Church of the Brotherhood)를 만들게 되고 곧 "형제단"(United Brethren)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퓨리탄(청교도)처럼 엄격한 교리와 훈련, 예배의 개혁 그리고 형제애들을 강조하고 사도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에 역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믿음과 기도와 선교가 그들 신앙의 특색이었기에 당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분리되어

#### <안 후스의 동상 앞에서>

독립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 다,그래서 그들은 로마교회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100년 후인 1618년에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30년 종교전쟁(1618-1648)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30년 전쟁의 결과로 유럽 인구의 1/2이 죽고, 교육, 정치 문화가 황폐되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분열이 커졌고도덕적, 경제적인 면에서는 파괴적인 것이 었습니다. 또한 그 전쟁은 독일을 제후, 시 및 공국으로 분할시켜 놓았고, 당시 주민들에게 그 지역 통치자의 신앙(카톨릭, 루터교, 개혁파)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될수 밖에없는 모습이 됩니다.

30년 전쟁 이후에 로마교회의 개신교 박해는 더 심해지고 그 박해를 피해 약 3만 6천명의 모라 비안 형제단 사람들은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모라비아. 보헤미아에서 피난 온 안 후 스 일파의 형제단(The United Brethren)에게 독일 진젠 돌프백작이 자기 영토 내에 거주하게 하고 이름을 "헤른후트"(Herrnhut: 주님의 망대- 사실 독어가 아니라 체코어 )라고 정하면서 진젠돌프의 지도로 1727년 8월 13일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곧 모라비안 운동(Moravian Movement)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 모라비안의 기도운동과 선교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을 이끌면서 그가 이미 다섯 살 때 "자기를 위하여 생을 준 분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예수에게 인도하는 것"을 결심을 실천합니다. 그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여 세계 를 변하게 한다는 것이었고 "겨자씨의 제도"(Order of the Mustard Seed)라는 단체로 만들어 그리

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 됩니다.



**<독일 헤른후트에 남아있는 모라비안 공동체 터전>**

모라비안의 단체는 그들을 이끄는 두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임 전체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투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기독교의 전투적 기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라비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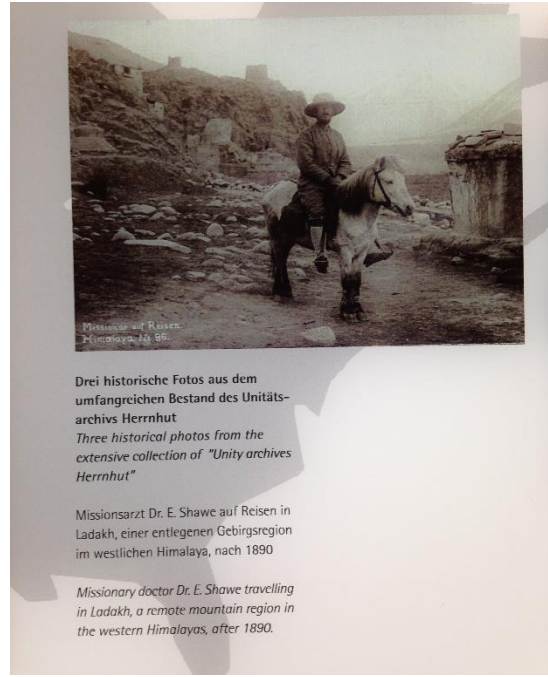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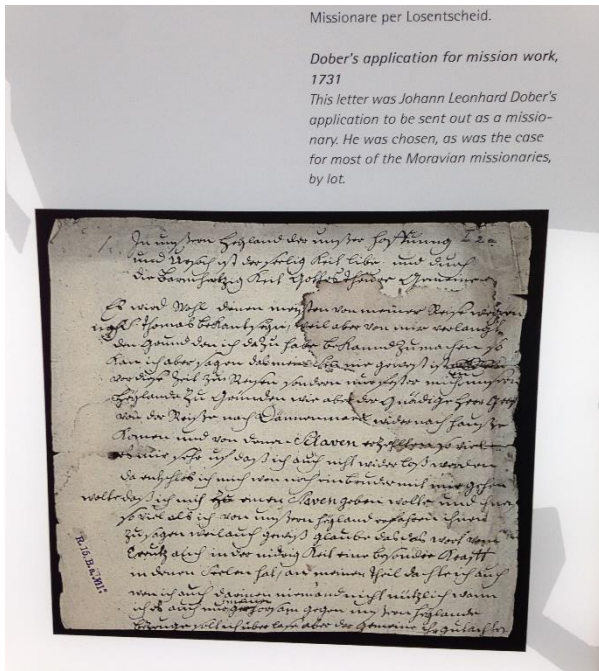
**“100% 자비량, 100% 성경연구, 100% 평신도”**

**“오직 구두끈 2개와 외투와 성경만 가지고 간다”**

모라비안의 원칙은 1) 기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 일치가 안되면 일치될때까지 기도를 연장한다 3)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100년이 넘도록 24시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망대에 모여서 자기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매일 한 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도할 때는 옆드려 48명이 기도하고 그 기도속에 전혀 모르는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나라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수리남(남아메리카), 스웨덴의 북쪽 부족, 동북부 인도, 남아공 등으로 퍼져가는데 이들이 있었던 곳들은 후에 모든 부흥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의 가장 위대한 일은 이들이 오늘날 근대 선교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사도들이 당시 지중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과 스페인이 땅끝이라는 생각에 스페인 넘어 존재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의 선교는 사도들의 선교를 이어 전 대륙으로 퍼져가는 글로벌 선교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신청서>

<웨스트 히말라야에 파송된 모라비안 선교사>

더욱 놀라운 것은 마틴루터의 종교개혁(1517년) 이후부터 모라비안 운동(1727년)이 부흥을 맞이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보낸 개신교가 선교사 숫자보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20년간 보낸 선교사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윌리엄 캐리라울 떠 올립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떠나기 60년 전에 이미 수많은 모라비안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떠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나기 150년 전에 먼저 선교지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처음 모라비안 선교사가 나갔을 때 그 곳에는 10만명의 노예들이 매해 팔려 와서 가련한 인생을 보내야 했는데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서인도 땅에서 노예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노예로 팔면서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일으키자 백인 지주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노예해방의 기틀까지 쌓은 사람들이 모라비안 선교였습니다.

어떻게 모라비안 선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모라비안 공동체는 선교회라고 말할 하지만 평범했던 하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투길 좋아하고 질서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교육과 성숙이 없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근대 기독교 선교의 초석이 될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라비안을 공동체 자리를 다녀오면서 찾은 답은 역시 기도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교단의 힘을 빌리거나 조직의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하지 않고 제도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고 오직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핍박과 어려움속에서도 근대 선교의 모체가 될수 있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모두가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뛰어난 전략과 뒷받침 되는 조직이나 물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의 본질인 기도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 편지를 마치면서

###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어떤일이 성공적으로 잘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본질이요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도록 이끌며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고 성령은 오직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앞에 기도할 때 선교는 함께 따라오는 기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모라비안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속에 열매맺은 선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간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도는 부흥을 가져오고 부흥은 곧 영혼 구원의 선교라는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기도-부흥-선교는 언제나 함께 일어나고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입니다.

2018년도 저는 계획하진 않았지만 모라비안의 기도와 선교운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이것이구나하는 작지만 강력한 감동을 주체할수 없음을 느낍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할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정 내 마음을 지친자리를 회복할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2017년을 마감하면서 사실은 2017년이 제게 조금은 힘든 한해였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감, 때로는 여러 실수 속에 찾아온 자책감 그리고 아쉬움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했지만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주님은 새로운 시작임을 도전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임을 분명히 붙잡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수 있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위대하고,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않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2018년 새해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1) 2018년은 제게도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도해왔던 선교 공동

체 사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 자녀들과 여러사정(사역지, 아이들 학교등)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보냈습니다. 사춘기 시간을 혼자서 보낸 아이들이 이제는 다 자랐지만 그들의 모습속에 비어진 부분들이 있음을 볼 때마다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수 있기를, 제인의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곧 골방이 시간입니다. 저와 아내가 하나님앞에서 골방의 시간을 지킴으로 오직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더 깊어질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 영국 웨일즈에서

류용덕 목사가정